

형제 잘못이 내 잘못이요, 형제 사정이 내 사정이 되어야

죄인은 남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자신과 싸워 자신을 이겨야

우리 승리제단은 나를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제단이요, 타인과 싸우는 그런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들이나 타인과 싸우고, 타인의 허물을 나무라고, 타인을 향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겨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고로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승리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승리제단은 자유율법을 지키는 제단이요 자유율법을 안 지키고 타인과 더불어 싸우는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승리제단은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맹렬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상대방이 나를 짓이기고 멀리 천대를 해도 대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기는 생활, 자신을 짓이기는 생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

그런고로 이 사람이 밑살 들어가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고, 구뭇발에 채이면서 갖은 시험을 당했지만 언제 한번 이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을 향해서 대항해 본 적이 없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자신이 마귀요, 자신이 죄가 되고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이제 곧 내 허물처럼 보게 되고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신앙 간

증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고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방법을 논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형제의 죄가 내 죄요, 형제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인고로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면 곧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누우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간 시간이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 죄를 짓고 잘못하는 형제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어지면 절대로 상대방이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존심이 없어져야

이 길은 자신을 짓이기고 자신을 죽이는 길이지 이 길은 타인을 나무라거나 타인을 가르치거나 타인을 권고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은 자신이 자신을 다듬는 길입니다. 형제의 잘못이 자기 눈에 보이면 바로 그것은 곧 자기 속에 그러한 마귀가 있는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눈에 띄면 음란죄가 자신 속에 있는고로 보이는 것이지 자신 속에 음란죄가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는 방법, 하나님 되는 방법은 나라의 자존심이 없어져야 하는데 자존심이 없어지려면 나라의 주체의식을 짓이기고 나라의 주체의식을 항상 죽이는 생활을 해야 없어지는 것이지 나라의 의식을 짓이기지 않고 항상 잘난 척하고, 남의 허물만 말을 하면 그 자존심이 죽을 수가 없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 본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지, 죄를 안



조희성 구세주

짓는 사람은 그게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미운 사람도 없고, 못마땅한 사람도 없고, 노인네를 봐도 예쁘고, 젊은 사람을 봐도 예쁘고, 어린이를 봐도 예쁘고, 동을 싸도 예쁘고, 무슨 짓을 해도 아름답게만 보인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

파란 색안경을 쓰고 하얀 것을 보면 하얀 것도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안경을 썼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회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졸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

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각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지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어 한 사람도 없고, 노인네를 봐도 예쁘고, 젊은 사람을 봐도 예쁘고, 어린이를 봐도 예쁘고, 동을 싸도 예쁘고, 이것을 검토해서 6000년간 지은 죄를 닦고 닦기가 바쁜데 남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생활을 하면서 버스비 1원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 차비를 내고서야 다리를 뺀고 잤다는 이 사람의 신앙 간증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이 사람은 죄를 닦아내고 또 죄를 털어버리기가 얼마나 바쁜지 남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털어버리고, 내 죄를 정리하기가 바쁘고로 이 세상에 내 눈에는 전부 다 나보다 월등하고, 나보다 깨끗하고, 나보다 아름답고 의롭게만 보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투쟁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긴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기까지는 수 십년간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허물을 벗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바로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바로 가족을 생각하는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고, 또한 누구를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고, 나를 의식하면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맡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되지 않는고로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맡겨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이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것만 기도를 하니까 결국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 2년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온전히 맡겨주시니 바로 하나님에게 맡겼다가 되니까 바로 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 것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인은 남의 죄를 정죄할 권한 없어

시커먼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고 씻어서 또 죄를 질지라도 또 씻고 씻어서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정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액을 부여해서 수 년 동안 키우고 키운 가운데에 후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마귀의 꼬임에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넘어져서 상처 입은 것을 다시 싸매주고 고쳐줘서 의인을 다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6000년간 조상 대대로 원죄와 유전죄가 있는고로 하나님 앞에 몇몇하게 설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바리새교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땅에다가 뭐라고 글자를 썼느냐면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 그거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의 죄를 정죄할 때는 의인이나 정죄를 하는 거지, 죄인은 정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남의 죄를 정죄할 권한도 없고, 죄인은 남의 죄를 정죄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1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 이든 '쾌락' 이든 그것들은 모두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인간은 무수한 자극 속에서 그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물질적 자극' 이란 음식물, 약물, 화학물, 운동 등에 의해 직접 신체에 자극을 가하는 요소를 말한다. '정신적 자극' 이란 사랑, 미움, 공포 등 정신에 자극을 가하는 요소이다. 여기에다 '자연적·사회적 환경 자극' 을 더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자극요소들을 생명적(生命的)인 측면에서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물질' 또는 '생명의식' 이 되고, 후자는 생명을 고갈시키는 '독소물질' 또는 '독소의식' 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물질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이 훨씬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일상을 살면서 사람은 무수한 정신적 자극을 받고 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 는 말처럼 매순간의 자극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것이 건강과 생명에 유익한 쪽으로, 또는 유해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해한 자극은 그야말로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피를 썩히는 독소로 작용하고, 유익한 자극은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피를 맑히는 생명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유익한 자극을 가하기보다는 유해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천수(天壽)를 누릴 수 없게 한다.

과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정신적 자극' 과 '유익한 정신적 자극'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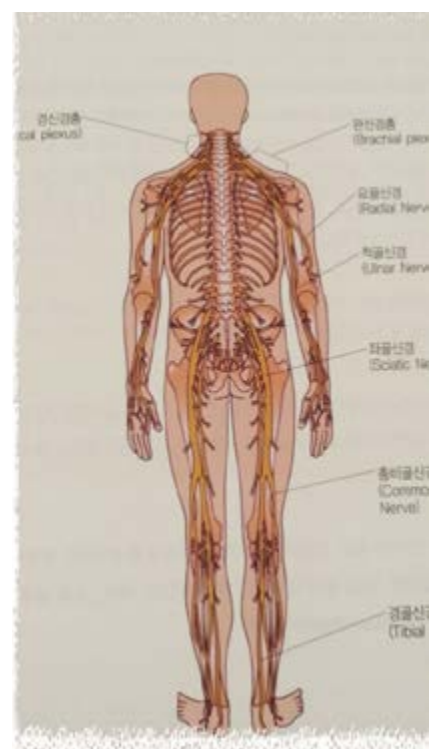
유해한 정신적 자극

사람을 늙고 병들어 죽게 하는 유해한 정신적 자극, 마치 나를 죽이는 철천지원수와 같은 정신적 자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해악이 되는 욕심, 분노, 원망, 낙심, 불안, 공포, 조바심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일상생활에서 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욕심을 가지고 생리학적,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한번 낱알이 분석해 보자.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

피를 맑히는 자극과 썩히는 자극 ①



양심을 속이는 순간 뇌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된다

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과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항상 끼어드는 것이 욕심이다. 때순간 사람의 바른 마음과 뒤뜰린 마음을 시험받게 되는 곳이, 곧 이 사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생활 속에서 양

심과 욕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욕심이나 욕심이 아니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금방 욕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준다.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속된 말로 머리를 굴리게 된다는 것이다. 머리를 굴려 욕심을 취할 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중추가 되는 양심을 속이게 된다. 타인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양심은 속이질 못하므로 마음이 몇몇치 못하여 행동이 위축된다.

생리학적으로 머리를 굴린다는 것은 뇌신경이 교란되고 과민해져서 중추신경을 따라 말초신경과 체성신경을 통해 전신에 이상신호가 전달된다. 심장이 쿵쿵거리 불규칙해지고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이 이상스런 분비를 하고, 핏속에서는 나쁜 스트레스 물질이 만들어져 혈액의 질이 나빠지고, 또 혈관은 오그라든다. 이로 말미암아 정신은 올바른 판단에 균열이 생기고, 오장육부와 사지는 위축되게 된다.

의학상으로 정신과 신체는 동시

발적으로 작용하여 미세한 압박을 받게 되고 신경과 호르몬은 혼란과 비정상을 초래하게 된다. 사람이 작은 욕심을 부릴 때는 그나마 정신적 육체적 압박이 비교적 작으나, 누가 봐도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는 심신에 광장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곧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한 욕심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몸과 마음이 막히고 굳어져 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조이산어록(正祖李祘語錄)에는 "사람의 칠정(七情)으로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사랑(愛)·미움(惡)이 나타나 절도에 맞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욕', 이 한 글자를 잘 제어하여 한결같이 천리의 공정함을 따르면 희·노·애·락·애·오가 나타나 모두 절도에 맞게 되어 자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중국 위진남북시대의 <안씨가훈> 지족편에 '지나친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 는 말이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에 도리(道理)는 모두 가득 채우는 일을 미워한다. 겸손하고 욕심이

없고, 덜어낼 줄 안다면 언제나 해(害)를 피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은 추위와 노출을 덮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음식은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몸 안에서 오하려 사치와 지나침을 원하지 않는 데, 몸 밖에서는 어찌 교만과 지나침에 끝이 없는가?

욕심의 마수에서 벗어나자

주나라 목왕, 진시황, 한무제는 부유하기로 말하면 천하를 모두 가졌고, 귀하기로 말하면 천자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 끝을 알지 못하여 오하려 멸망과 더럽힘과 이른 죽음을 자초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르고 있다. 또 삶의 보배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똑같이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마음의 유혹이 바로 '욕심' 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욕심, 삼가 주의하고 경계하여 그 마수(魔手)의 손아귀에 걸려들지 말아야 하겠다.*

김주호 기자